

수오재기 - 정약용



알맹이 정리

- ✓ **출 전** : 『여유당전서』
- ✓ **갈 래** : 한문 양식의 하나인기(記), 고전 수필
- ✓ **성 격** : 자성적, 자경적(自警的)
- ✓ **구 성** : 기승전결의 4단 구성
- ✓ **제 재** : ‘수호재(나를 지키는 집)’ 라는 당호(堂號)
- ✓ **주 제** : 마음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
- ✓ **작가소개** : 정약용(1762~1836) 조선 후기의 학자, 호는 다산, 여유당 등.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광범위한 학문을 쌓고 방대한 저술을 남겼으며 유형원과 이 익 등의 실학을 계승하고 집대성하였다. 저서에 <목민심서>, (흙흙신서), <경세유표> 등이 있다.



문제로 정리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오재(守吾齋)’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다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잘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스스로 말하였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발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발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의 여러 가지 꽃나무와 과일 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 속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궁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으랴.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

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꺾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겹칠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스러운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도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으리오.”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에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서, 십 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 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서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십이 년 동안이나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새재를 넘게 되었다. 친척과 선영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 때에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이곳까지 함께 오게 되었다. 내가 나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 왔느냐? 아니면 바닷귀신이 불러서 왔느냐.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엄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 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 때 내 둘째 형님 좌랑공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 곳에 함께 머물렀다.

오직 ㉩나의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오재’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내게 태현이라고 자를 지어 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집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 대는 말썬이다.

맹자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썬이 진실하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어재의 기(記)로 삼는다.

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큰 형님의 삶을 기리며 추모하고 있다.
- ㉡ 수오재' 라는 당호(堂號)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
- ㉢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자신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 ㉣ 한문 양식의 하나인 기(記)이며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다.

- ⑤ 의문을 제기하고 깨달음을 논하는 구성이 설득력을 갖는다.

2.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성현의 명구를 인용하여 주장을 강조하는 논거로 삼았다.
- ②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을 도출하여 삶의 지침을 제시해 준다.
- ③ 무소유의 삶을 통해 인간사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으로 회귀하기를 권유하고 있다.
- ④ 글의 갈래는 한문 양식의 하나인 ‘기(記)’로 수상록 형식의 고전 수필에 해당한다.
- ⑤ ‘수오재’란 당호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글을 시작함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3. 이 글의 서술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추상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끌어내고 있다.
- ② 상반되는 두 관점을 대비하여 새로운 결론을 맺고 있다.
- ③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서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 ④ 여러 가지의 예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사물의 의미를 끌어내고 있다.

4. 다음 중, 이 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수미: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이루지 못할 게 없어.
- ② 형석: 진정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해.
- ③ 진석: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 ④ 진희: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이야.
- ⑤ 수정: 내 마음이 외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간수 해야겠어.

5. 깨달음에 이르는 작자의 태도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 ① 여행에서 얻은 견문으로 미루어 짐작한다.
- ② 스스로 여러 참고 자료를 탐독하여 얻는다.
- ③ 학식이 많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여 얻는다.

- ④ 일상에서의 의문에 대한 사색을 통하여 얻는다.
- ⑤ 세상 만물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얻는다.

6. 이 글의 작자와 태도가 유사한 것은?

- ①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결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나건/ 웃지요
- ②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 ③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④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어떤 이는 내 누에서 죄인을 읽어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7. 이 글의 ‘나’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귀양을 가 있는 상태이다.
- ② 입신양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③ 자연과 더불어 삶을 즐기고 있다.
- ④ 형님들의 처지를 부러워하고 있다.
- ⑤ 어떠한 것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다.

8. ㉠~㉢ 중, <보기>의 ‘거울 속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오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오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握手)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 모르는왼손잡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아니었다든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오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거울속의내가있
오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事業)에골몰할게요 <후락>
- 이 상, <거울>

- ① a, b, c ② a, b, d, e
③ a, b, c, f ④ a, b, d, e, g
⑤ b, d, f, g

9. ㉠의 문맥적 의미는?

- ① 처음 듣는 ② 상당히 참신한
③ 이해하기 어려운 ④ 받아들이 수 없는
⑤ 신비한 느낌을 주는

10. <보기>에서 ㉡과 의미가 통하는 속담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 마음에 없는 염불
㉡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
㉢ 목은 거지보다 했거지가 더 어렵다.
㉣ 마음 한번 잘 먹으면 복두칠성이 굽어보신다.
㉤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울 적 마음 다르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바
④ 나, 바 ⑤ 다, 바

11. ㉢의 뜻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출세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② 늘 자연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③ 가족을 책임지고 돌보지 않으면
④ 닥쳐 올 신상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⑤ 본질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12. ㉢을 본문에 나오는 한 단어로 표현하시오.

13. 이 글의 제목에서 '수오' 가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수오재기 정약용 핵심정리+ 핵심문제.hwp

1) ①

이 글은 큰형님의 삶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큰형님 집의 당호(堂號)인 '수오재'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2) ③

'수오재'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봄으로써, 경험으로부터 사물의 의미를 이끌어 내었다.

3) ⑤

4) ④

5) ⑤

'수오재'라는 당호에 의문을 갖던 작자는, 귀양지에서 혼자 지 내며 여러 날 생각하던 끝에 그 해답을 얻게 되었다.

6) ②

작가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①김상헌, <남으로 창을 내겠소> ②윤동주, <참회록> ③김현승, <눈물> ④이육사, <절정> ⑤서정주, <자화상>

7) ①

작가는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었다가 처지가 바뀌어 귀양을 간 상 태인데,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이 그러한 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8) ⑤

진지한 자세로 본질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중심을 잃게 된다고 하고 있다.

9) ③

문맥상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10) ③

㉠은 마음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마음이 자기를 떠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은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즉 일정한 법칙 없이 드나드는 마음의 속성을 잘 나타낸다.

11) ⑤

진지한 자세로 본질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중심을 잃게 된다고 하고 있다.

12) 귀양

㉢은 귀양을 가는 과정을 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3) 나를 지킨다